

성인의 강박증상과 감각처리특성과의 관계

정혜림*, 김경미**

*인제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성인을 대상으로 강박증상과 감각처리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지역의 대학생 326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강박증상과 감각처리특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도구로는 모즐리강박검사와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강박증상과 감각처리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감각처리특성에서 강박증상의 유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전체 대상군에서 강박증상과 각 감각처리특성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456-.521, p<.05$), 강박증상군에서는 강박증상과 감각처리의 등록 저하, 감각 예민, 감각 회피의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강박증상은 감각처리의 문제로 감각에 대해 예민하거나 회피하는 등 행동적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강박증에 대한 감각처리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강박증, 감각처리, 모즐리 강박검사,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I. 서 론

강박장애(強迫障礙,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상태를 말한다. 강박장애는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으로 구분하며, 강박적 사고가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강박적 행동은 그것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한다(DSM-IV, 1994). 강박장애는 두뇌의 신경전달물질 중 충동성, 공격성, 자살, 불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로토닌’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뇌의 전두엽과 기저핵 부위를 잇는 신경망의 기능에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한

주, 2000).

이러한 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강박적 사고와 행동의 증상으로는 강박적인 씻기 행동, 확인 행동, 수집행동, 균형 또는 정확성에 대한 욕구, 사물 정렬 또는 대칭에 대한 욕구, 시간의 지연 등이 있다. 과도하게 손을 씻거나 장시간 샤워를 하기도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등 불안감으로부터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자신의 실수와 사고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문이나 가스 불을 잠그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의 반복과 이에 따른 확인,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점검 등의 반복적 행동을 한다. 물건을 항상 반듯하게 두거나, 대칭적으로 두거나 맞춰 놓는 행동은 완벽 주의적 성향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양치질을 하는 데에만 30분이 소요되고 목욕을 하는

데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 등과 같이 강박장애 환자들이 반복적인 강박행동에 몰두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이한주, 2000). 강박적 사고와 행동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생리학적으로 감각처리 특성을 측정하였을 때 강박장애는 주어진 청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크고 반응을 일으키기까지의 잠재기가 짧다(Kumari, Kaviani, Raven, Gray, & Checkley, 2001). 또한 환경에서 주어지는 감각에 예민하여 주어지는 자극을 무시하는 것이 어렵고, 자극을 피하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감각을 회피하는 성향을 띤다(Brown & Dunn, 2002; Rieke & Anderson, 2009).

강박장애의 감각적 예민함으로 인해 회피하는 반응과 강박 행동을 함으로써 만족감이나 안정감을 찾는 강박증상은 개인의 감각역치에 따라 다양한 행동전략을 취하는 감각처리에 대한 Dunn(1997)의 모델로 설명된다. Dunn(1997)은 모델에서 개인이 가지는 감각 처리유형은 감각역치와 행동반응 전략에 따라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감각처리 특성을 감각 예민(sensory sensitivity), 감각 회피(sensory avoiding), 등록 저하(low registration), 감각 찾기(sensory seeking)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감각 예민(sensory sensitivity)은 낮은 신경학적 역치에 대한 수동적 반응으로 감각에 대해 불편감을 가지며, 감각 회피(sensory avoiding)는 낮은 신경학적 역치에 대한 능동적 반응으로 감각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감각을 회피한다. 등록 저하(low registration)는 높은 신경학적 역치에 대한 수동적 반응으로 감각에 대해 느린 반응을 보이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감각 찾기(sensory seeking)는 높은 역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능동적 반응으로 많은 감각이 주어지는 환경이나 움직임으로 부터 즐거움 찾는다(Brown & Dunn, 2002).

이와 같이 강박장애에서의 감각처리 문제가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그동안 작업치료 서비스에서 성인 정신장애의 증상은 개인의 기질적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또한 강박증상의 정도와 감각처리특성의 상관성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박증상과 함께 동반되는 감각처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적 접근을 하기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강박증상의 정도와 감각처리특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둘째, 강박증상군과 정상군의 감각처리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지역의 6개 대학(교)에서, 17개 학과의 대학생 32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97(± 1.85)세 이었다. 설문지는 연구에 대한 목적을 듣고 연구에 동의 한 학생들 370명에게 배부하였고, 그 중 회수된 설문지는 346명으로 회수율은 93.5%이었다. 응답자 중 기본정보설문에 정신과나 신경과적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3명(우울증 3명)과 한개 이상의 설문응답을 누락하였거나 부적절하게 표기한 17명을 제외한 326명(94.2%)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1) 포함기준

- (1)설문을 이해하고 시행가능 한 대학생
- (2)연구에 동의한 자

2) 배제기준

- (1)정신과나 신경과적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2)인지나 감각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거나 복용중인 자

2. 조사방법

연구 방법으로 설문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와 검사지는 모즐리강박검사지(30문항), 청소년/성인감각프로파일(60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학과에 설문조사의뢰 후 설문지와 검사지는 설문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방법에 대한 교육 후 직접 전달하였고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교육내용에는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설문의 시행방법, 설문지 작성방법이 포함되었다.

각 학과의 설문담당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목적과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학생들이 응답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시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와 검사지에는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여 대상자의 개인적인 정보의 외부로의 노출을 방지하였고, 대상자가 개인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설문작성의 오류를 예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시행하였다.

3. 연구도구

1) 모즐리 강박검사

Maudsley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OCI) Steketee, Frost와 Rogart의 연구에 의하면 1996년에 관찰자 평가 척도보다 자기보고식 평가 척도가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으며 피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증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강박증상을 알아보기 위한 자기 보고식 평가 척도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Hodgson과 Rachman(1977)이 고안한 모즐리 강박증 척도(Maudsley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 MOCI)이다(신용옥 등, 2001).

본 연구는 조대경(1985)이 변안한 한국판 모즐리 강박검사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모즐리 강박검사는 이전 연구자들에 의하여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0.80$)와 검사-재검사 신뢰도($r=.5, .71$)가 검증되었다. 이 척도는 총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에 '예' (2점)와 '아니오' (1점)로 답하게 되어있으며 강박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모두 '예'로 답하게 되어있다. 총점의 범위는 최소30점, 최대 60점이며 총점이 44-48점 일 경우 강박증상이 있는 것으로 49점 이상일 경우에는 심한 강박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며, 본 연구에서는 모즐리 강박검사의 총점 44점 이상을 강박증상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모즐리 강박검사의 3개 항목을 김숙희(2010)의 연구에서 인용하여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1번 항목인 '병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중전화의 사용을 꺼린다.'를 '병균에 감염될까봐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를 잡기 싫다.'로, 15번 항목인 '편지를 부치기 전에 쓴 것을 몇 번씩 확인한다.'는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기 전에 쓴 것을 몇 번씩 확인한다.'로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27번 '나는 소독약을 많이 쓰는 편이다.'는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는 서양과 그렇지 않은 우리와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낮은 응답률을 고려하여(신용옥 등, 2001) '나는 평소에도 손세정제를 자주 쓰는 편이다.' (김숙희, 2010)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2)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AASP)

청소년과 성인의 감각처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Brown과 Dunn(2002)이 개발한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은 미각/후각처리 8문항, 시각처리 10문항, 촉각처리 13문항, 활동수준 10문항, 청각 처리 11문항 등의 5개의 감각영역에 대하여 총6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이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화 한다. 60개 문항은 다시 4개의 감각처리 특성으로 나뉘어 합산되고 점수의 범위는 각 특성 당 최소 15점에서 최대 75점이다. 합산된 각 특성의 점수는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개인의 감각처리특성이 결정된다. 정상범위 보다 각 특성의 점수가 낮고 높음은 일반인에 비해 해당 특성의 감각처리를 적게 하거나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감각 예민'의 점수가 일반인의 범위보다 낮다는 것은 일반인 보다 감각에 대하여 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며, 높다는 것은 같은 자극에 대하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다.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4개의 감각 처리특성은 등록 저하(low registration), 감각 찾기(sensory seeking), 감각 예민(sensory sensitivity), 감각 회피(sensory avoiding)이다. 본 연구는 박미희와 김경미(2006)가 번역과 전문가 검증과정을 거친 청소년/성인감각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대상자의 인구학적 분포, 모즐리 강박검사를 통한 강박증상과,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을 통한 감각처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강박증의 유무에 따른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감각처리 특성별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 전체와 강박증상군의 강박증상과 감각처리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α 는 .05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326명의 대학생으로 남자 62명, 여자 197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1.97 ± 1.85 세 이었다. 1학년은 97명, 2학년은 89명, 3학년은 93명, 4학년은 47명 이었다. 전체 326명 중 약 20.5%인 67명이 모즐리 강박검사에 의해 강박증상군으로, 나머지 259명(79.5%)은 정상군으로 분류되었다. 평균 연령은 강박증상군이 21.91 ± 1.69 세, 정상군이 22.17 ± 1.89 세로 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p=.301$), 두 군의 남녀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p=.992$) (표 1).

2. 강박 증상

모즐리 강박검사의 결과는 대상자전체의 평균이 38.87 ± 4.88 이었고 최소30에서 최대55점의 범위를 가졌다. 모즐리 강박검사의 총점 44점 이상인 강박증상군의 평균은 46.08 ± 2.42 이었으며, 범위는 44~55점이었다. 총점 44

점미만의 정상군의 평균은 37.01 ± 3.39 이었으며, 범위는 30~43점으로 두 군의 평균은 9.07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표 2).

3. 감각처리특성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결과는 감각처리특성에 따라 표3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전체의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점수의 평균은 등록 저하가 30.90 ± 6.87 점, 감각 찾기가 35.85 ± 7.46 점, 감각 예민이 35.40 ± 8.19 점, 감각 회피가 32.61 ± 7.84 점이었다. 강박증상군의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점수의 평균은 등록 저하가 36.34 ± 6.28 점, 감각 찾기가 37.70 ± 7.61 점, 감각 예민이 41.58 ± 6.73 점, 감각 회피가 39.00 ± 6.63 점이었다. 강박증상군의 감각처리 특성별 점수의 평균은 모든 특성에서 정상군보다 높았다(표 3).

감각처리특성에 따라 강박증상군과 정상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등록 저하($p=.00$), 감각 예민($p=.00$), 감각 회피($p=.00$), 감각 찾기($p=.019$)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강박증상군 명(%)	정상군 명(%)	전체 명(%)
나이(세)	21.91 ± 1.69^a	22.17 ± 1.89^a	21.97 ± 1.85^a
성별	남 16(23.9)	62(23.9)	78(23.9)
	여 51(76.1)	197(76.1)	248(76.1)
대상자수	67(20.5)	259(79.5)	32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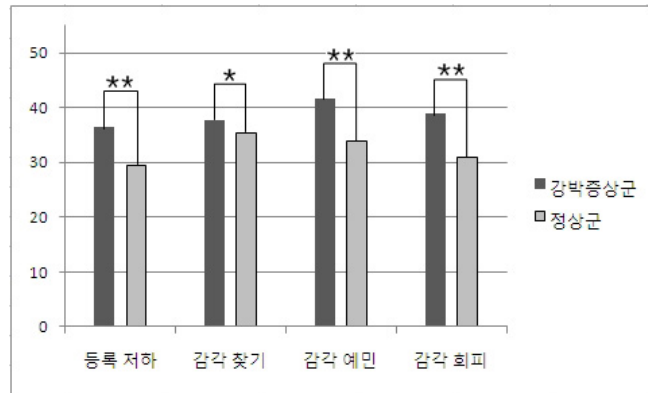
^a: $M \pm SD$

표 2. 강박증상군과 정상군의 모즐리 강박 증상(총점)

구분	강박증상군 ($M \pm SD$)	정상군 ($M \pm SD$)	전체
MOCI	$46.08 \pm 2.42(44 \sim 55)$	$37.01 \pm 3.39(30 \sim 43)$	$38.87 \pm 4.88(30 \sim 55)$

표 3. 강박증상군과 정상군의 감각처리특성(AASP) 결과

구분	강박증상군 ($M \pm SD$)	정상군 ($M \pm SD$)	전체
등록 저하	$36.34 \pm 6.28(18 \sim 50)$	$29.50 \pm 6.30(45 \sim 48)$	$30.90 \pm 6.87(15 \sim 50)$
감각 찾기	$37.70 \pm 7.61(21 \sim 61)$	$35.37 \pm 7.36(19 \sim 59)$	$35.85 \pm 7.46(19 \sim 61)$
감각 예민	$41.58 \pm 6.73(27 \sim 58)$	$35.51 \pm 7.77(15 \sim 63)$	$35.40 \pm 8.19(15 \sim 63)$
감각 회피	$39.00 \pm 6.63(18 \sim 56)$	$30.96 \pm 7.27(16 \sim 61)$	$32.61 \pm 7.84(16 \sim 61)$



* $p<.05$, ** $p<.01$

그림 1. 강박증상군과 정상군의 감각처리특성 (AASP 평균) 차이

표 4. 강박증상과 감각처리특성과의 상관관계

구분		MOCI	
		전체	강박증상군
AASP	등록 저하	.456**	.279*
	감각 찾기	.150**	.165
	감각 예민	.479**	.487**
	감각 회피	.512**	.325**

* $p<.05$, ** $p<.01$

4. 강박증상과 감각처리특성과의 관계

대상자전체와 강박증상군에서 강박증상과 감각처리특성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4와 같다. 대상자전체에서 모즐리 강박검사의 총점과 등록저하, 감각 예민, 감각 회피가 각각 $r=.456$ 과 $r=.479$, $r=.521$ 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전체의 모즐리 강박검사의 총점에 따른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각 영역별 점수를 산포도와 추세선으로 나타내었을 때 4개의 영역 모두에서 모즐리 강박검사의 총점이 증가함에 따라 4개의 감각처리 특성의 점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감각 찾기 영역의 점수는 다른 세 영역에 비해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그림 2).

강박증상군에서 강박증상과 감각 예민에서 $r=.487$ 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각 회피에서 $r=.325$ 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4).

IV. 고 찰

우리나라에서 정신과환자가 아닌 정상인의 100명 중 두세 명 정도는 일생 중 한번 강박장애에 걸린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강박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일반 인구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어 일반인도 강박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이용승, 2010). 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강박장애의 발병 시기는 주로 사춘기에서 성인초기이며(민성길, 2003), 강박 증상을 가지는 대학생의 경우 시간이나 환경에 의해 증상에 덜 적응된 연령대이므로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다. 또한 대학생의 특성상 성인 전체에 대한 일반화는 어렵지만 동일 연령대에서 인구학적 다양성(출신 지역, 학과, 종교)을 가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기에 타당하여 대학생을 대상군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강박증상과 감각처리 특성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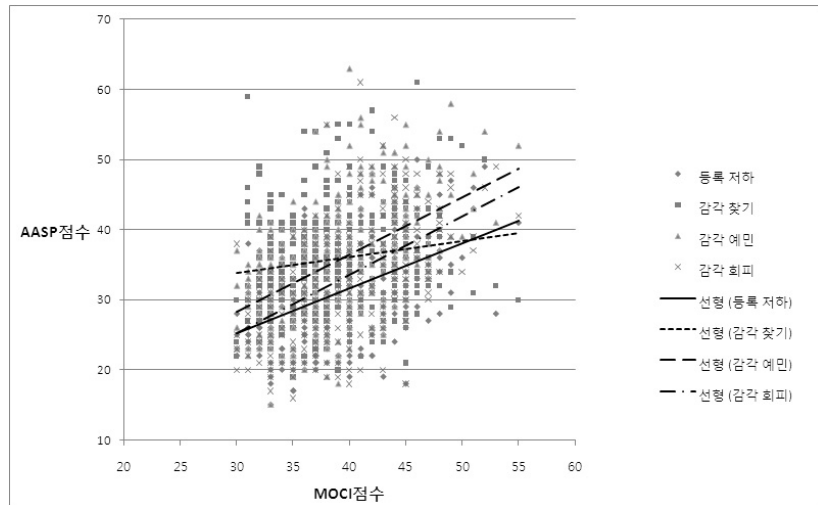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자전체의 강박증상과 감각처리특성의 산포도와 추세선

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거주지 분포의 요소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따라서 상관관계라는 연구의 특성상 대상군의 지역의 대표성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많은 대상자의 확보의 편리성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전남의 6개 대학교(대학)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첫째, 진단받지 않은 성인 중 강박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 감각처리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강박증상의 유무에 따라 감각처리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 강박증상의 유무에 따라 감각처리특성에 차이가 있었고, 모즐리 강박 검사의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 저하, 감각 찾기, 감각 예민, 감각 회피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즐리 강박검사의 결과는 총점의 평균이 38.87 ± 4.88 이었고 이 결과는 민병배와 원호택(1999)이 대학생 67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의 평균 39.4, 표준편차 5.0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모즐리 강박검사를 통해 분류된 강박증상군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강박장애의 발병률 보다 높은 20.5%의 비율을 보였다. 강박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정신과적 진단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많은 경우가 증상에 적응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유병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이용승, 2010).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에서 각 감각처리 특성간의 평균점수는 등록 저하가 30.90, 감각 예민이 35.40, 감각

회피가 32.61로 정상 범위에 해당되는 수치였고, 감각 찾기는 35.95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김진경, 최종덕과 이택영, 2007; 최종덕, 김진경과 이택영, 2010). 감각 찾기(sensory seeking)는 감각에 대한 높은 역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작용으로 환경이나 움직임으로 부터 많은 감각이 주어지는 즐거움 찾는 것으로(Brown, Tollefson, Dunn, Cromwell, & Filion, 2001) 감각 찾기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기존의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개발자인 미국에 비해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는 문화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언어와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표준화 작업 없이 번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이유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내적 일치도는 등록 저하 .692, 감각 찾기 .693, 감각 예민 .712, 감각 회피 .722으로 나타나 좋은 내적 일치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즐리 강박검사에 의해 강박증상군으로 분류된 대상군의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결과는 강박증환자의 감각처리특성을 설명한 Rieke와 Anderson(200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을 사용한 Rieke와 Anderson(2009)의 연구에서 강박증환자는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개발의 표본이 된 일반인보다 등록 저하, 감각 예민, 감각 회피의 점수가 높게, 감각 찾기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강박증상군은 정상군보다 등록

저하, 감각 예민, 감각 회피의 점수와($p<.05$) 감각 찾기($p<.01$)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강박증상군의 감각 찾기의 점수가 정상군보다 높은 반면 강박장애를 대상으로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을 사용하여 감각처리를 평가한 사전 연구에서는 감각 찾기의 점수가 정상군보다 낮았다(Rieke & Anderson, 2009). 이것은 Rieke와 Anderson(2009)의 연구에서는 강박장애로 진단받은 대상군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는 강박증 검사도구에 의해 강박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진단 받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감각자극에 대한 반응을 신경생리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근전도 또는 전기전도반응을 측정한 실험결과 강박장애를 가진 군에서는 정상군 보다 근전도나 전기전도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 감각자극에 대하여 예민 반응을 보였다(Ulrike et al., 2007). 본 연구에서 강박증상과 감각 회피, 감각 예민의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난 결과는 사전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지금까지 정신과 작업치료의 대상에서 많은 경우 강박장애는 제외되었었다. 아동 감각통합치료가 보편화된 반면, 성인정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감각처리의 문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강박 증상을 가진 사람은 감각 처리의 특성이 정상인과 다르며, 이러한 감각 처리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박장애와 같은 성인정신장애를 대상을 하는 작업치료 서비스에서 그들의 감각처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강박장애의 감각처리 특성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기위해 성인 강박장애로 진단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감각처리 특성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감각 처리의 특성상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감각구별(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운동감각)의 연구와 성인을 대상으로 감각처리를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도구와 검사를 통해 강박장애의 감각특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성인 326명을 강박증상의 유무에 따라 강박

증상군과 정상군의 두 군으로 나누어 감각처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감각 처리의 네 가지 특성 모두가 강박증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전체 대상군에서는 감각 회피, 강박증상군에서는 감각 예민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강박장애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가지는 감각처리의 문제와 관련한 작업치료 분야의 적절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강박장애의 감각 처리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숙희. (2010). 모즐리 강박 척도에 따른 구취 발생에 관한 임상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김진경, 최종덕, 이택영. (2007). 성인의 감각처리에 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3), 117-125.
- 민병배, 원호택. (1999). 한국판 Maudsley 강박행동질문지와 Padua 강박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63-182.
- 민성길. (2003). 최신정신의학(제4 개정판). 서울: 일조각.
- 박미희, 김정미. (2006). 성인용 감각처리 평가도구의 필요성 및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의 소개. 대한감각통합학회지, 4(1), 17-28.
- 신용옥, 윤탁, 황주리, 신민섭, 권준수. (2001). 모즐리 강박증 척도를 통한 강박증 환자의 증상군 연구.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지, 10(2), 110-117.
- 이용승. (2010). 강박장애의 이해. 서울: 한국상담선교연구원.
- 이한주. (2000). 강박장애. 서울: 학지사.
- 조대경. (1985). 강박행동의 객관적 측정에 관한 일 연구-Maudsley 강박행동목록 표준화.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20(1), 78-90.
- 최종덕, 김진경, 이택영. (2010). 성인의 감각처리유형과 인성의 상관성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1), 23-3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rown, C., & Dunn, W. (2002). *The Adult Sensory*

Profile. Sam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Brown, C., Tollefson, N., Dunn, W., Cromwell, L., & Filion, D. (2001). The Adult Sensory Profile: Measuring patterns of sensory processing.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5(1), 75–82.
- Dunn, W. (1997). The impact of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on the daily lives of young children and families: A conceptual model. *Infants and Young Children*, 9(4), 23–25
- Hodgson, J., & Rachman, S. (1977). Obsessional–compulsive complai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5(5), 389–395.
- Rieke, E. F., & Anderson, D. (2009).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3(2), 138–145.
- Steketee, G., Frost, R., & Rogart, K. (1996). The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Interview versus self–repor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8), 675–684.
- Ulrike, B., Sabine, W., Thilo, D., Scott, L., Roger, K., & Scott, P. (2007). Physiologic Responses to loud tones in individual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sychosomatic Medicine*, 69(2), 166–172.
- Veena, K., Hossein, K., Peter, R., Jeffrey, G., & Stuart, C. (2001). Enhanced startle reactions to acoustic Stimuli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 134–136.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Obsessive Compulsive Symptom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

Jung, Hye-Rim^{*}, M.Sc., O.T., Kim, Kyeong-Mi^{**},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bsessive-compulsive symptom and sensory processing of normal adult.

Methods : From November to December in 2010, mentally healthy 326 university(college) students were invited to complete tests for obsessive-compulsive symptom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 For the present study, Maudsley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MOCI) and 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AASP) as a measure of Dunn's were used.

Results : Depend on the existence of the obsessive-compulsive symptom, statistically different sensory processing features were presented. The group of obsessive-compulsive symptom had higher score on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and sensory avoiding than the normal group. The result indicate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obsessive-compulsive symptom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s($r=.456 \sim .521$, $p<.05$). In both groups with and without obsessive-compulsive symptom, as obsessive-compulsive symptom increased, the presented sensory processing features of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and sensory avoiding were increased. The group of obsessive-compulsive symptom had the feature of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and sensory avoiding.

Conclusions : In the present study, Adult's obsessive-compulsive symptom accompanied the sensory processing problem as sensory sensitivity. Thus, The measure and intervention program development for sensory processing problem are needed for obsessive-compulsive symptom.

Key words : 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AASP), Obsessive-compulsive symptom, Sensory processing